

삼광유리, 5000만달러 수출탑 수상

SAMKWANG
삼광유리

Glasslock



삼광유리(대표 황도환)가 5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.

유리 전문기업인 삼광유리는 12월12일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<무역 1조달러 달성기념 제48회 무역의 날> 행사에서 5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삼광유리는 2007년 1000만달러, 2009년 3000만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으며, 2년 만에 수출 5000만달러를 달성했다.

삼광유리 정구승 마케팅팀장은 “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유리용기인 <글라스락>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”며 “2012년에는 수출처를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1/12/13>